

# 기아차·금호타이어 노사협상 분수령

### 타결이나 장기화냐... 이번주 막바지 교섭서 판가름

꼬여있는 지역 대기업들의 노사협상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는 추석 이전 일단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12~13일 대의원 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투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제15차 임금 및 단체협약 분교섭을 벌였다. 노사는 최근 협상을 타결한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밤샘노동을 없애

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행 시기·방법 등도 현대차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조 장대위 소식지에 따르면 임금의 경우 지난 6월 14차 분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9만5500원 인상, 격려금 500만+9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생산능력·생산량 유지 및 인원 운영 등 단협 사항 중 31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점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막바지 협상으로 치달고 있는 기아차 노사협상은 미합의 부문에 대해 노사가 일괄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정 상으로도 추석 이전 완전 타결을 위해서는 이번 주 중 잠정합의안이 나오고 다음 주에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주간 2교대제 등 주요쟁점 사안에 대해 노사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협상이 무르익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

번 주내 일괄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지난 주부터 집중교섭에 나서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협상도 극적 타결이나, 장기화나를 놓고 이번 주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도 이날 제30차 분교섭을 벌였다. 교섭에 앞서 노조는 12~13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공고했다.

노조는 오는 14일까지 사측과의 집중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공경별로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이번 주가 노사갈등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정부 경기 살리기...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 아반떼 32만원·쏘나타 48만원↓

### 자동차·가전품 세금 인하

정부의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반떼 1.6은 32만원, 쏘나타 2.0은 48만원, 체어맨 H 2.8은 68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도 된다. 경적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는 평균 2만9000원 가량 깎아준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적용된다. 도소매업자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보유한 재고

본도 관할 세무서나 세관의 확인을 받아 세금 인하여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의 특징은 동일할 %포인트(=1.5%포인트)만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2000cc 이하 승용차와 대형 가전은 5%에서 3.5%로 30% 내리지만,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18.8% 인한다. 품목별 사례를 보면 엑센트(1.4) 25만1000원, 아반떼(1.6) 32만5000원, 크루즈(1.8) 34만1000원, SM5(2.0) 41만7000원, K5(2.0) 42만7000원, 쏘나타(2.0) 48만원, 그랜저(2.4) 57만3000원, 체어맨 H(2.8) 68만2000원 등이다.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세(개소세의 30%만큼 부과), 부

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효과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다만, 금융위기 직후에 취해진 세감면 혜택보다는 약하다.

2008년 12월19일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할 때는 무조건 30%씩 인하여 2000cc 이하는 이번처럼 세율이 3.5%가 됐지만 2000cc 초과(당시 세율 10%)는 7%가 됐다.

승용차 판매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제도가 시행된 5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개소세율을 1.5%포인트씩 깎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 "한국 경제 성장을 둔화"

### 외국계 투자은행들 전망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급격히 내렸다.

일부 IB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예상하는 등 대부분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IB들이 최근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6%였다. 7월 말 기준 2.9%에서 한 달여 만에 0.3%포인트 낮아졌다.

기관별로는 UBS가 2.9%에서 2.1%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2.6%)을 고려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1.6% 정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1%대 성장률은 강력한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수준의 부진한 수치다.

JP모건은 2.9%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 도이치방크는 3.0%에서 2.6%로 내렸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즈도 각각 2.8%, 2.7%로 전망치를 낮춰잡았다.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져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하반기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재 10개 주요 IB의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6%로 7월 말 3.7%에서 소폭 하향조정됐다. /연합뉴스



###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10일 오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지역 인재 찾아가는 채용설명회'에서 대기업 취업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롯데와 현대차 그룹 인사담당자의 채용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평동 외투지역 분양 전환·광주은행 분리매각을

### 광주상의 경제 과제·현안 34건 청와대 등에 건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10일 평동외국인투자지역 분양 전환 등 광주·전남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및 지역 현안을 청와대 등 각급 기관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전달한 건의사항은 광주·전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24건과 지역 현안 10건 등 모두 34건이다. 건의문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민주통합당 대표, 광주·전

남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됐다.

광주상의의 건의문에서 "평동 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은 임대료·보증금 등의 부담이 커 입주기업들이 경영난을 겪는 데다 신규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분양조건을 마련하고 분양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골목상권 살리기 특례보증 지원 ▲공공분야 재정 일자리 확

대 ▲중소 수출업체 무역기금 대출기준 완화 ▲친환경제품 인증절차 간소화와 기준 개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개선 ▲전남 조선산업 활성화 및 구조조정 지원 ▲여수석유화학단지 관리 감독 일원화 등 24건을 건의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광주은행 분리 매각과 지역 환원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 유치 ▲동광주~광산 나들목 호남고속도로 확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부 재정 지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국비 지원비율 상향 등을 건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세금 덜 떼고 연말정산 덜 돌려줘

### 근소세 원천징수 합리화

정부가 10일 내놓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은 '덜 떼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근로자로서 결국 '조삼모사'인 셈이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할 것으로 근로자가 내는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9월 급여(1~8월분은 소급)부터 세금을 덜 떼다. 하지만 연초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종전의 방식으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일회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지만 퇴직시점에 그 부분이 반영된다.

개정안은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

율을 상향조정해 공제규모를 키워 원천징수액을 줄였다. 현재 2인 이하는 '110만 원+총급여의 2.5%'를 공제했으나 개정안은 '210만 원+총급여의 4%'로 올렸고 3인 이상은 '250만 원+총급여의 5%+총급여 4000만 원 초과분의 5%'에서 '350만 원+총급여의 7%+총급여 4000만 원 초과분의 5%'로 바꿨다.

4인 가구, 월 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에 적용하면 월 26만 9290원이었던 근소세 원천징수액이 24만 820원으로 2만 8470원(11%) 줄어든다.

3인 가구,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현행 4만 756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1만 5070원(32%) 감소한다.

특별공제를 조정은 원천징수액을 낮추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낮출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올해 소득에 대한 최종 납부세액은 변함이 없어도 '13월의 보너스'인 환급액은 원천징수한 만큼 줄어든다.

다만 정부로서는 올해 정부수입이 2조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행 제도에서 정부수입을 보면 올해 원천징수액이 20조 원, 환급액이 4조 원으로 수지는 16조 원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어 올해 원천징수가 18조 5000억 원으로 줄고 이미 환급한 4조 원을 반영하면 수지는 14조 5000억 원이 된다. /연합뉴스

## 중기청 하반기 벤처투자 1000억 확대

중소기업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벤처 투자를 1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하면서 벤처 캐피탈 업계는 물론 모태펀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출자한 자(子)펀드의 실무자가 작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기청은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실무자액을 상반기 4천864억 원보다 약 1000억 원이 늘어난 5천 8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실납입액도 당초 계획보다 500억 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24.70 (-4.88)
코스닥지수	512.11 (+1.24)
금리 (국고채 3년)	2.80% (-0.02)
원·달러 환율	1,129.30원 (-1.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http://www.hankooktea.co.kr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고품질 녹차

친환경 다원

한국 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 3973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다양한 유기능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농림수산식품부

강농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